

윤리경영과 벤처의 창의성

윤리경영은 기업경영의 글로벌 스탠더드

미국의 엔론, 월드컴, 일본의 유끼지루시와 같은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들 기업은 분식회계 등의 회계부정과 사용 금지된 식품원자재의 사용 등으로 인해 파산한 기업들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윤리적인 의사결정”의 문제는 단 한번의 실수로 기업이 파산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험영역에 속하는 것을 실례로 보여주고 있다. 엔론사 파산 이후 범세계적으로 기업의 준법정신을 높일 수 있는 근본처방으로서 기업윤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기구의 윤리라운드(Ethics Round) 추진, 미국윤리임원협의회(EOA)의 ‘기업윤리경영표준안’ 제정,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윤리경영 표준시안 채택 등에서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 증가, PL법 시행, 주주대표소송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 증대, 인터넷의 보급·확대로 인한 ‘사이버 파워’ 등으로 비윤리적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윤리경영은 기업경영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윤리경영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구분(A. Carroll)할 수 있다. 이중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이 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라면 「윤리적 책임」은 법적으로 강요되지 않아도 사회통념에 의해 형성된 윤리적 기준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윤리경영’ 이란 법적 책임의 준수는 물론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기대를 기업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핵심은 소위 3C로 불리는 ‘기업윤리 강령제정–준수여부감독조직 상설화–교육을 통한 사원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윤리경영 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이 그 핵심이다.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로서 내부신고제, 윤리경영매뉴얼 제작 배포, 청렴서약제 및 윤리경영 독려 서한 발송, 협력업체와의 인터넷 거래비중 강화 등의 다양한 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과 경영의 분리 및 재정과 경영의 분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영혁신 및 윤리경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 벤처기업에 있어 윤리경영은 벤처기업이 일정 정도 성공한 이후엔 외부전문가 도입 같은 과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혁신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기준을 세밀하게 준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및 자체감시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같은 기업의 개별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 한데 정보통신부는 지난 해 9월 ‘IT중소벤처기업 윤리경영 실천 매뉴얼’을 내놓기도 했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매뉴얼은 윤리경영의 개념과 관련제도, 바람직한 윤리경영 모델과 구축방법 및 평가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해 10월 IT벤처기업협회가 IT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5%가 윤리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작 윤리경영의 실천은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리경영’은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만큼 기업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개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벤처의 재기 넘치는 끼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윤리역량이 마음껏 발현되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